

전국 의대 최초 '지역사회 봉사' 정규교과 운영 성과 공유

원광대 의과대학, 올 상반기 성과 공유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민선)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최초로 지역사회 봉사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을 도입해 운영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한 학기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29일 오전 원광대학교 제2의학관 7층 제생의생 홀에서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김민선 학장은 2026학년도 1학기 의과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목인 '사회봉사' 과정을 운영해 학생 전원이 30시간 이상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예비 의사들에게 전문 지식뿐 아니라 나눔과 공감,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공중체 정신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의과대학은 지난 2025년 7월 7일 지역사회 기관 6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학기에는 이 가운데 17개 기관에서 학생들이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기 종료와 함께 열린 성과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와 느낀 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 등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시작자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민선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최초로 지역사회 봉사 중심의 정규 교육과정을 도입해 운영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한 학기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29일 오전 원광대학교 제2의학관 7층 제생의생 홀에서 개최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체감하고, 미래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감과 봉사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선 의과대학 학장을 비롯해 양재호 도덕교육원장,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교수진 10명, 의과과 학생 100명, 협력기관 관계자 40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김민선 학장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 것은 학생들이 의학적 역량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연계 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의 인성과 전문성을 함께 키우는 의학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기자·익산=이재준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사회복지 행정실무 업그레이드 과정 수료식

남원여성새일센터는 29일, 직업교육훈련성과 감사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비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행정실무 업그레이드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업그레이드 과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됐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은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50일, 200시간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활용 교육 등으로 구성 운영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20명 중 4명이 조기 취업에 성공하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새일하기센터(063-620-5280~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구직여성과 구인기업의 연계는 물론,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여성 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간호사회, 취약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등록 가정 찾아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회가 지역사회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섰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간호사회(간호부장 정민희)가 최근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등록된 취약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방임과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위생환경에 놓인 아동과 가족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민희 간호부장을 비롯한 전북대병원 간호사 2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봉사단은 4개 조로 나뉘어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총 3회에 걸친 전문 방역 서비스를 제공해 위생환경 개선 효과를 높였으며,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한 10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도 함께 전달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전북대병원 간호사회는 지난 2001년부터 도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물품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김제자봉센터, '마음을 담은 색깔' 사업 진행

김제사자봉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27일 백산면 일원에서 노후화된 외벽을 세척하고 페인트를 도색하는 '마음을 담은 색깔'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활동에 참여한 칠봉회(칠하는 봉사회, 회장 고성훈) 단체는 페인트칠 전문봉사단으로 활동 중이며 도색 작업 과정에서 발견되는 노후 전선 및 전등 교체 등 간단한 보수 작업까지 실시해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더하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고위직 등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최근, 연지아트홀에서 관내 학교 관리자 및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2026 고위직 등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감 강화를 위한 3월 실시한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점했으며, 오는 7월까지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김산초 학생 300여 명이 씨네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역본부 전문 강사인 권리세 이버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했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시,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실시

김제시는 29일, 김산초등학교 2학년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성별과 인종,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알록달록'을 활용해 영화 감상과 토론, 워크북 활동을 연계한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 학교는 지난 3월 실시한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점했으며, 오는 7월까지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김산초 학생 300여 명이 씨네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역본부 전문 강사인 권리세 이버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했다. /김제=곽태 기자

고창군, '제4회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성료

고창군이 29일 고창읍 태흥부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4회 고창군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행사'를 열었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보훈대상자 9명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오찬과 함께 보훈가족 화합 한마당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다양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보훈가족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고, 세대 간 공감과 화합을 이끌었다.

고창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식 고창군수는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



라며 "보훈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3회 부안 변산마실길 전국 시낭송경연대회 성료

부안군은 사)한국시낭송문화예술연구회에서 주최한 제13회 부안 변산마실길 전국시낭송 경연대회가 전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시낭송가와 문인들이 모여 부안 변산마실길을 소재로 한 작품과 부안 출신 문인들의 시를 낭송하며 문학을 통해 부안의 자연과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본선 참가자 21명이 그동안 닦은 기량을 겨룬 결과 신석정 시인의 '술꾼 전설을 지니고' 작품을 낭송한 윤석순(충남)씨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금상은 정하심(군산)씨, 은상은 김영란(김제)씨가 수상하였다. 동상에는 최은순 박선희, 황맹례, 지영미, 맹은재, 김영숙, 박덕순, 김미순 박갑순 윤인순씨가 이름을 올렸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문학을 사랑하는 전국 시낭송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더욱 발전하여, 부안의 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변산마실길은 부안의 서해안과 여촌마을, 자연



경관을 따라 조성된 대표 해안 걷기길로, 자연과 문화,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이다.

이러한 변산마실길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6월 개최되는 '부안 변산마실길 전국시낭송경연대회'는 부안의 문화와 관광을 함께 홍보하는 대표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진 전북,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윤여일)는 29일 정읍시청에서 기탁식을 갖고 상생 발전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03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윤여일 본부장, 한진 관계자와 시 공무원 등 5명이 참석해 상생의 뜻을 나눴다. 전북본부는 지난 2024년 2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 1,0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30만원을 쾌적했다. 이로써 3년 연속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이음 누리집이나 5개 은행 응용프로그램(앱) 또는 농협 대면 창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기부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동참하는 시민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돕는 보람과 함께 세계 공예, 담례품 제공 같은 다채로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탁액에 대해 44%의 공제율이 적용돼 세액 공제 폭이 한층 넓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진 남원지사, 보훈가족에 생필품 전달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정연일, 위임장 이동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보훈가족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쳐 따뜻한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한진 남원지사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남원시 주천면 일대 호국보훈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인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남원지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준비했다. 전달된 물품은 보훈가족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구성됐으며, 직원들은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다.

한진 남원지사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물론 설과 추석 명절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상근 기자